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7월 31일 성삼위일체 후 7주일[연중 18주일] · 다해 · 녹색

제57-30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루가 12:13-21)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13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남은 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보관할 장소가 모자랄 만큼 많은 소출을 얻게 된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과 수고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잠언 16:33)라는 말씀처럼 그의 최후는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재화를 얻고 소유합니다. 재화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자신이 얻은 재화가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말씀은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가 자신이 거둔 소출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하룻밤 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을 줄 알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의 최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재물이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축복에 도취되어 축복을 베푸시

는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물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 자기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하느님께서 당신 소유의 재물을 관리하라고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의 소유라 여기지 않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지 않고, 재물을 맡기신 분의 뜻을 살피는 일에 집중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기보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도구가 되려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통해 하느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다른 이들도 하느님의 나라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에 참여케 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축복의 절대적 척도도, 구원의 외적 조건도 아닙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고 지금, 여기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구원에 참여하면서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을 그 구원으로 초대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균하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중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성삼후시기(연중시기) 전례 안내

전례곡 C곡: 영광송(성가 81장),
거룩하시다(성가 82장), 하나님의 어린 양(성가 83장).

2.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화·수·목·금 아침 6시 30분 성전
※ 금요일 아침 미사 후에는 간단한 다과 시간을 갖습니다.

■ 알림

1. 안마태 신부님 내방

우리 성당의 설립(1966년) 성직자이신 안마태 신부님과 그레이스 사모님께서 우리 성당에 방문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2. 8월 교회위원회

다음 주일(8월 7일) 오후 12시 45분 성전
교회위원회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3. 세실대학 5기 신입생 모집

- * 원서 마감: 7월 31일(주일) - 우편과 온라인 접수
- * 자격: 성공회교인으로서 신자사역에 관심이나 뜻이 있는 분
-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 제출서류: 입학원서,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서, 교회위원회 추천서 및 관할사제 추천서
- * 전형일시: 2022년 8월 7일(주일) 오후 4시
- * 모집학과: 교회학교학과, 전도돌봄학과, 말씀전례학과, 지역 선교학과
- * 자세한 사항은 보좌사제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4. 전례 영상 봉사자 모집

전례 실시간 영상 송출, 촬영, 편집을 도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련 교육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문의: 구균하 신부)

5. 영등포 성당 소개 인터넷 서비스 링크와 QR 코드

성당 소개 링크 웹사이트(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수정 중.
주소: linktr.ee/st_chris_church



6. 낡은 성서 수집

더는 사용하지 않는 낡은 성서가 여기저기 많지요? 함부로 버리기가 곤란하셨지요? 상태에 따라 수선하거나 기증하고, 조심스럽게 정돈하여 폐기하도록 돕겠습니다. 더는 쓰지 않는 성서를 성당으로 가져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단체 소식

◆ 안드레회 월례회

2022년 7월 31일(오늘) 11시 성찬례 후 베드로방
회의 후 썬지공원 화단정리와 간단한 식사가 있었습니다.

◆ 제4차 전국어머니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대상: 전국어머니연합회 실행위원
일시와 방법: 2022년 8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 zoom 온라인 회의(추후공지)

■ 교우 소식

◆ 입퇴원 환자 특별 기도 요청

서세룡 마가 (퇴원 후 가료 중)
이순환 모이서 (퇴원 후 가료 중)

◆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하늘(7/31일) 변진선(8/1일) 우영현(2일) 황호익(3일)
전유성 박은영(4일)

◆ 유학

이사빈 사비나 교우(이한준,오현희 교우의 딸)가 독일 유학을 위해 8월 6일(토) 출국합니다.

◆ 어머니회 선교기금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8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2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쌀보리 2kg 7천원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구정애 김용학 김종희 박영수 박해웅 송미경 신명식 이경희 이복련 이순경

■ 주정헌금

김경찬 박남미 박성준 박소현 박주영 변진선 서정민 송미경 송종익 신희숙 심주민 윤영옥 윤옥랑 이경희 이광자 이규리 이자영 이정숙 이종한 주창순 한부순 홍성호

■ 감사헌금

강남교무구(어린이 청소년 캠프) 서세룡(맥추/퇴원)
이순경(생활) 홍수산나(자녀방문)

■ 구역헌금

■ 기타헌금(미사 헌금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이복련 이순경

■ 예수사랑

김용학 이복련

■ 온라인선교

이복련 이순경

■ 여성선교

이복련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은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이순환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새교우 김두식 안소영 김진선 강가라연 김사라

■ 수험생 백지웅 서은수 송종익 이규리 정지원 추서연

■ 임 신 정새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이사빈(독일)

복음을 담은 교회, 환대하는 성당을 향하여

우리 성당은 1966년 설립된 이래, 문래동 공장 지대와 철공 산업의 한 중심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목과 선교를 펼쳐왔습니다. 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신앙의 쇄신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 눈물과 땀 위에 우리 성당이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 전부터 문래동 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거대한 방직 공장이 없어지고 대단지 아파트로 삶의 보금자리가 들어섰으며, 문화예술인들은 비어가는 철공소 골목에 예술 창작촌을 형성하여 새로운 상상력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산업화의 흔적을 살피면서 여가를 즐기는 레스토랑과 카페로 유명한 ‘핫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성당은 1972년 새 성당을 짓고, 30년 후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사목과 선교를 이어가려고 애썼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배 신앙인들이 땀 흘려 세운 성당을 잘 보전하여 아름답게 지켜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신자를 환대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키워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상황은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와 종교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당은 새로운 사목과 선교의 쇄신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주일 성찬례 참여를 예전처럼 회복하고, 매일 성찬례도 새로 시작하여 그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역 연합 헌신 예배를 되살려 일상 신앙을 추스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성당 문을 두드리는 교우들을 환대하고 있으며, 성당 밖에서도 신앙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모임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이뤄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새교우를 환대하여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꿈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사목단과 교회위원회가 변화를 결심하고, 교우 전체가 기도와 헌신으로 합심할 때, 우리 영등포 성당은 이곳 문래동에서 ‘복음의 핫 플레이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8월부터 진행될 성당 부분 수리와 성전 제대 공간 정돈, 성당 정면 개선 공사에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많은 교우가 열망하는 성전 엘리베이터 설치도 계획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이 성당을 위하여 헌신하신 교우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가정에 보내드릴 <선교 특별 봉헌> 캠페인 서신을 참조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의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43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45 다함께
 영광송(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복의 근원이신 하느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받은 물질과
 재능을 축복의 도구로 선용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
 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전도 1:2, 12-14, 2:18-23 말은이
 시편 시편 49편 다함께



- 1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이 이 말을 들어라.
 ○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
 두 다 들어라.
 2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이지냈고
 ○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3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모두 죽는
 법이다.
 ○ 그 재산은 결국 남에게 이두고가는 것!
 4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새겼더라
 ○ 그들의 영원한 집, 언제나 머물 곳은 아무도 없다.
 5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
 6 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그 꼴이 되니
 ○ 제 말만 내세우는 자도 그렇게 되리라.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 독서(읽는다) 골로 3:1-11 말은이
 총계성가 성가대 특송
 복음환호송(A곡) ✧ 301 / ♪ 56 말은이
 복음서(선다) 루가 12:13-21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56 다함께
 봉헌성가 ♪ 489장/엑솔타테회 다함께
 예물기도 ✧ 256 말은이
 성찬기도(1양식) ✧ 257

거룩하시다(C곡) ✧ 257 / ♪ 82 다함께
 기념환호송(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C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
 상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71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555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7월 31일)		다음 주일 성찬례 (8월 7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이경희	이성빈	서정민	이은미
2독서	우영현	김민경	우영현	윤지훈
대 도	신명식	신환중	신명식	서남철
십자가	박해웅	이종한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8월 7일	전례독서 다니 7:9-10, 13-14 시편 97 2베도 1:16-19 루가 9:28-36			
	성 가 입당 255장 봉헌 283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493장			
성 당 청 소	8월 6일 엑솔타테회 1조 김재현 박남미 이연희 이정주 유희주		8월 13일 엑솔타테회 2조 고창덕 윤범기 조진성 추경민	